

어린이 책꽂이

▲인권그림책-나는 소중한(제1권)=어린이들의 인권을 명쾌하게 풀어나간 새로운 개념의 인권 교육시리즈.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 상대방도 소중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소중한다는 진리를 아름다운 그림을 곁들여 일깨운다. <미래 M&B·1만원>

▲박지원이 들려주는 열하일기=조선시대의 대문장가이며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소설 '열하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냈다. 청나라를 여행하게 돼 뽕뜰 모습, 술과 농담을 즐긴 박지원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세상모든책·9천원>

▲너도 보이니?(제3권)=독특한 사진작업으로 새로운 그림책 장르를 개척한 윌터 워크의 그림책 찾기가 '너도 보이니?' 시리즈. 맛깔이 단추들, 으스스한 공룡나라, 해변의 친구들, 구슬 잡동사니, 반듯한 나무부록 등 12개의 숨은 그림 찾기가 실려 있다. <달리·9천500원>

▲만화로 보는 로마 이야기=천년제국의 신화 로마의 역사 이야기를 미래 SF소설의 요소를 가미해 재미있게 엮은 만화책. 주인공인 가람은 닥터 제로, 카마와 함께 로마시대를 여행하면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만나고 여러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가나출판사·9천500원>

▲바리공주=시인이며 소설가인 김승희씨가 어린이들을 위해 처음으로 쓴 그림책이다. 바리공주 여자로써 겪은 고단한 삶과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펼쳐지는 이야기 흥미진진하다. 바리공주의 슬픔, 기쁨, 분노, 희망, 사랑 등의 감정변화가 원색의 그림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비룡소·9천500원>

불꽃같이 살다간 49인의 마지막 한마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원재훈 지음

생의 끝자락에 놓인 사람들이 남긴 말 한마디는 산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잊혀질 정도로 강렬한 울림으로 남는다. 죽음이란 '절대진실' 앞에 경건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위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지상에 남긴 말은 산 사람들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절절한 문구까지로 남았다. 소설가 원재훈씨가 쓴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는 위인은 물론 범부까지 자신의 삶을 철저히 불사른 49명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의 마지막 한마디를 모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그 자체로 명저를 누르는 '통증'으로 다가온다.

대구지하철 사고의 한 희생자는 딸에게 "운동 녀너히 뒤처져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라는 말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남겼다. 단락 사고로 숨진 미국의 광부 마틴 톨러 주니어는 "별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잠드는 것 같아. 사랑한다. 모두에게 다음 세상에서 만나"

코베인·체 게바라·대구 지하철 희생자 등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지상에 남긴 말



<체 게바라>

<커트 코베인>

<코코 샤넬>

다윈의 '종의 기원' 만화로 만나다

비글호에서 탄생한... 기획집단 모임

다윈의 '종의 기원'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등 고전을 만화로 만나 보는 건 어떨까. 역사와 고전의 현대화·대중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서해문집이 인문만화 시리즈 '카툰 클래식'을 시작한다. '카툰 클래식'은 인문·역사·예술·고전 분야의 명저를 접근하기 쉬운 '만화'라는 틀을 빌려 조명한 시리즈로 사진과 그림자료, 해설 등까지 함께 실어 충실하게 제작했다. 첫권으로 나온 '비글호에서 탄생한 종의 기원'(구성 기획집단 모임, 그림 신용)은 다윈의 생애와 그가 비글호를 타고 떠난 항해 과정에서 찾아낸 과학적 지식, 세계를 흔든 명저로 꼽히는 '종의 기원'을 비롯한 진화론과 관련된 과학적 성과를 담았다. 앞으로 '만화로 보는 철학사'(리처드 오스본), '갈리아 전기'(율리우스 카이사르), '사기 열전'(사마천),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 '서풍파리 오페라'(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이 대거 중이다. <서해문집·1만1천9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바꾼 불펜·화약...

세상을 바꾼 최초들 제르마 지음

'최초'라는 것에는 커다란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최초'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기원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프랑스 출판사 편집장 출신의 피에르 제르마가 쓴 '세상을 바꾼 최초들'은 제목에 걸맞은 책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40여 가지 항목의 기원과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불, 양초, 거울, 바늘, 패션 마네킹 등을 거쳐 바퀴, 화약 등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발명품까지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물건을 다룬다. 이 밖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사용된 곳, 인쇄물의 최초 오자, 택시의 어원 등 다소 시시콜콜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역사상 최초의 평가절하, 프랑스 대혁명이 가장 먼저 대두된 곳, 바칼로레아의 역사 등 한 시대의 생활 및 문화사를 엿볼 수 있는 질문들까지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로 가득 차 있다. <하늘연못·1만7천원>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아키 유키오의 '우리 모두를 위한...'

피서(避暑)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피서는 더위를 피하려 갔다가 더위를 찾아 나선 꼴이 되기 십상이다.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의 저자 신영복 선생은 피서(避暑)라 하여 여름을 책을 읽기 힘든 계절이라 했다. 하지만 천개구리 식으로 사는 것도 또 다른 삶의 지혜다. 8월 초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월권을 낚은 책이 바로 아키 유키오의 '우리 모두를 위한 비폭력 교과서'이다. 저자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파괴와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풀어나가는 비폭력 행동을 지금 당장 실천하고 촉구한다. 우리나라 환경운동·비폭력평화운동의 원로인 김원식 선생이 번역한 이 책은 폭력과 비폭력의 정의부터 시도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에서부터 비폭력인지를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폭력은 육체, 정신, 물질에 대한 강제력이나 침해에 말하는 '직접적 폭력'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구조적 폭력'이 있다. 이것은 사회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강제력이나 침해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테러리즘, 핵, 미디어, 경제 개발을 뜻하는 '팩스 이코노미카' 등도 모두 폭력이다. 그 중 가장 커다란 폭력은 권력에 의한 폭력이며, 남녀 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성의 지배가 통하는 체제 즉, 폭력적인 남성우위 사회 역시 폭력이다. 직접적인 폭력 혹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전쟁 등의 거대한 폭력에는 민감하면서도 흔히 일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성차별, 장애차별 등에는 둔감하기 쉬운 보통사람들에게 따듯한 일침이 될 만하다. 그러면 비폭력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단순 소박한 삶, 평화적인 수단과 진실한 동포의식, 비폭력적 적정 기술, 커뮤니티의 건설 등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 개발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민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물욕을 억제하고, 가난한 나라나 사람들로 부터 자원을 수탈하는 것을 즐기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에 공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116쪽)."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비폭력 실천 방법 안내'도 꽤 실용적이다. 전단을 배포하는 데 경찰관이 와서 제지하면, 미리 경찰관에 대응할 답답자를 정해놓고, 경찰관과 토론하는 틈새를 타서 신속하게 배포하라는 식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폭력 트레이닝 방법을 다룬 '비폭력 수업기, 이렇게 하자'도 독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각각의 방법들이 25여 컷에 달하는 삽화로 표현되어 있어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다. 인간을 차별하는 구조적 폭력에 지금 당장 대응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용목 목사 (사)실로암시립회 회장

핵·미디어·경제개발도 폭력이다

그 중 가장 커다란 폭력은 권력에 의한 폭력이며, 남녀 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성의 지배가 통하는 체제 즉, 폭력적인 남성우위 사회 역시 폭력이다. 직접적인 폭력 혹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전쟁 등의 거대한 폭력에는 민감하면서도 흔히 일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성차별, 장애차별 등에는 둔감하기 쉬운 보통사람들에게 따듯한 일침이 될 만하다. 그러면 비폭력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단순 소박한 삶, 평화적인 수단과 진실한 동포의식, 비폭력적 적정 기술, 커뮤니티의 건설 등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 개발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민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물욕을 억제하고, 가난한 나라나 사람들로 부터 자원을 수탈하는 것을 즐기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에 공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116쪽)."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비폭력 실천 방법 안내'도 꽤 실용적이다. 전단을 배포하는 데 경찰관이 와서 제지하면, 미리 경찰관에 대응할 답답자를 정해놓고, 경찰관과 토론하는 틈새를 타서 신속하게 배포하라는 식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폭력 트레이닝 방법을 다룬 '비폭력 수업기, 이렇게 하자'도 독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각각의 방법들이 25여 컷에 달하는 삽화로 표현되어 있어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다. 인간을 차별하는 구조적 폭력에 지금 당장 대응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용목 목사 (사)실로암시립회 회장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정우부동산 (Jeongwoo Real Estate), 한국공인중개사 (Korea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등지공인중개사 (Dongji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Bightoul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아름다운부동산 (Beautiful Real Estate),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Donglim 2-gu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and 대지공인중개사 (Large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price, and features.